

보도설명자료

(‘13.7.1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반대대책위, 가칭 ‘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
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’ 구성 제안’ 관련
보도에 대한 설명 (‘13.7.16자 연합뉴스, 노컷뉴스,
오마이뉴스 등)

1. 보도내용

- ☐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“국무총리실이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”고 정부에 제안
 - 보도자료를 통해 “정부의 송전탑 갈등 중재를 주문한 국회 권고안에 따라 국무조정을 하는 국무총리실이 책임을 지고 중재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”고 주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

- ☐ 지난 7.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‘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입장’에서 ‘정부가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줄 것’을 요청한 바 있음
 - 이에 따라 정부 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재업무를 담당할 방침임
- ☐ 그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주 13일(토) 밀양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으며,
 - 앞으로도 주무장관으로서 수차례 추가 방문을 통해 밀양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

/ 끝 /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갈등관리팀 문양택 팀장(02-2110-3949)
김정예사무관(02-2110-3984)